장성군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 요람'으로 자리매김

어린이 기획 공연 '상상더하기' 등 올해 공연 27편, 행사 132회 개최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어린이 공연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예매를 시작하면 금세 매진을 기록하는 등 수요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찾은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열린 대공연장에서도 이러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김모 씨(광산구)는 "장성처럼 양질의 공연을 좋은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며 "광주 사람이지만 (장성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도 했다"고 귀띔했다.

이날 뮤지컬은 군이 기획한 '상상더하기' 공연의 일환으로 열렸다. 장성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2023년부터 어린이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 공연 '상상더하기'를 마련했다. 자치단체가 어린이 기획 공연을 추진하는 것은 전남권에선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장성군 문화교육과 신정숙 과장은 "아이 키우는 가정에선 비싼 공연비를 내면서 문화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공연을 아이들에게 선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상상더하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객들.

군은 올해 총 8편의 어린이 공연을 기획했다. 3월 15일 가족 뮤지컬 '라푼젤'을 시작으로 '어른 동생', '두들팝', '우리 가족' 등 거의 매달 막을 올렸다. 예매가 시작되면 보통 하루 안에 매진을 기록한다. 작년부터는 장성군민들을 고려해 티켓의 20%를 현장 예매분으로 남겨두고 있다. 다가올 공연으로는 12월 13일 크리스마스 시즌 뮤지컬 '산타와 루돌프'가 예정돼 있다.

공연을 찾는 관객들의 거주지도 각양각색이다. 장성군민은 물론 나주, 함평, 담양 등 인근 지역에서부터 멀리는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분포돼 있다. 어린이 공연뿐만 아니라 '알리x노을과 함께 하는 가을 콘서트' 같은 수준 높은 무대도 마련되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에만 총 27편의 공연을 40회 열었으며 '장성아카데미 30주년 기념 포럼',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콘서트' 등 대내외 주요 행사도 132회나 개최했다. 관객들이 공연 보러 온 김에 장성에서 식당이나 커피숍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의 바탕에는 시설 관리와 운영을 맡은 문화교육과 공무원들의 열정이 숨어 있다. 대공연장 684석, 소공연장 199석 등 시설 규모에 비해 인원은 적은 편이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팀워크'가 남다르다. 안전 문제부터 음향, 조명 등 공연에 관계된 모든 부분을 매주 세심하게 점검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개관 14년이 지난 시설이 이처럼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데서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며 "장성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암 상대포역사공원서 라라랜드·해리포터 영화음악이

10일 저녁 12인조 오케스트라 '상대포 아래, 영화의 선율' 공연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0일 오후 7시 군서면 상대포역사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클래식 공연 '상대포 아래, 영화의 선율'을 개최한다.

이 공연은 12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라라랜드〉〈해리포터〉〈캐리비안의 해적〉 등 영화 음악을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자리.

공연 관람객들은 깊어가는 가을밤, 고대 아시아인의 국제 교역항이었고, 현재 월출산 국립공원과 야간 경관조명이 아름다운 상대포역사공원에서 오케스트라 선율과 함께 낭만을 느끼고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총 200석의 관객석 중 150석은 사전예매로, 50석은 현장 접수로 배부한다.

전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좌석 예매는 9일까지 영암군홈페이지 '문화관광 공연예매'란이나 공연 포스터 정보무늬(QR) 코드로 할 수 있다.

관람객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40분까지 좌석에 앉아야 하고, 늦가을 야외 공연에 맞게 따뜻한 복장은 필수다.

김진중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영화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많은 신청 바란다. 낭만 가득한 상대포역사공원에서 가을밤의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용강도서관, 그림책『싸움』민아원 작가와의 만남 운영

10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선착순 접수

광양용강도서관은 오는 11월 23일(일) 오후 2시, 마로극장에서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책『싸움』의 저자 민아원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싸움: 여러 가지 감정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사회성을 높이고, 건강한 자아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읽을 도서『싸움』은 뾰족뾰족한 마음이 만나 별이 되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으로,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냈다.

참가 인원은 25명이며, 신청은 11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http://lib.gwangyang.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김현숙 도서관과장은 "이번 만남은 지역 어린이들이 평소 그림책을 통해서만 접하던 작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아이들이 작품과 더 깊이 친해지고, 독서의 기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행사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광양용강도서관(☎061-797-3859)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민아원 작가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 서배너 예술대학(SCAD)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으며, 2025년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초청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문화재단, '오유권 문학'으로 나주의 정체성 되새긴다

지역 출신 소설가 오유권의 삶과 작품 통해 지역 문학 자산 재조명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출신 문학인 오유권의 삶과 문학세계를 통해 나주의 정체성과 문학적 뿌리를 되새긴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오는 11월 5일 나주시립도서관과 타오르는강 문학관 일대에서 '소설가 오유권과 나주의 정체성'을 주제로 포럼, 전시, 문학 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 출신 소설가 오유권(1928~1999)의 문학세계를 학술적, 문화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역 문학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유권은 영산포를 중심으로 한 농촌과 민중의 삶을 따뜻하게 그려낸 작가로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서 '농민문학의 대표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번 행사는 영산포의 정서를 배경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돌아보며 '나주의 문학 정체성'을 되새기는 자리다.

행사는 오후 2시 30분 나주시립도서관에서 열리는 포럼으로 시작한다.

문순태 소설가의 기조 발제를 비롯해 이봉범 성균관대 교수, 최은영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오유권 문학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를 짚는다.

이후 오후 4시 30분에는 작가의 생애가 깃든 영산포 일대를 따라 걷는 '오유권 문학 투어'가 진행된다.

작가의 근무지였던 영산포우체국 등을 둘러보며 지역 문학의 정취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오후 5시에는 타오르는강문학관에서 '오유권 특별전'이 열린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육필 원고, 초판본, 일기장, 사진 등 귀중한 자료가 공개되며 관람객들은 작가의 인간적 면모와 창작 과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낭독회, 오유권 작품 '월광' 드로잉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감동의 장을 선사할 전망이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주 출신 작가 오유권 선생의 문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 작가와 문학 작품을 지속적으로 저장, 보관해 나주의 문화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나주문화재단과 타오르는 강문학관이 공동 주관하며 포럼과 전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